

<드림 옥션>

DREAM AUCTION

6월 5일 (토) 5시 - 7시

5th June (Sat) 5 - 7pm



온라인 참여

us02web.zoom.us/j/89127954320

현장 참여

탈영역우정국 2층 테라스

(서울 마포구 독막로 20길 42)

사전예약: bit.ly/dream-auction

드림 옥션

6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7시

장소: 탈영역우정국 2층 테라스 (서울 마포구 독막로 20길 42)

온라인 참여: us02web.zoom.us/j/89127954320

드림옥션은 신라시대부터 매몽설화, 선류몽 신화 등 한국사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꿈을 사고파는 사회적 풍습에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관습은 좋은 기운을 나누고 자 하는 심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로 꿈을 사는 사람의 믿음과 꿈을 파는 사람의 선의의 베품의 마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꿈거래는 성립되지 않을것입니다. 꿈을 사고파는 것은 비공식적인 친근한 행위이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생각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상호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 거래는 공식적인 경제 구조와 달리 개인의식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수용해 성사되는 개인간의 가치 교환 과정입니다. 드림옥션은 가까운 주변인들과 꿈을 사고파는 일상적인 관습을 경매라는 체계화된 형식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꿈의 거래 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가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물품으로 출품된 꿈의 내용을 읽고 참가자들에게 경매 과정을 안내합니다. 경매에 오른 각각의 꿈은 작가가 직접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되며, 경매 종료와 함께 최고가 입찰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입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현장 참여의 경우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본 경매 참여에는 사전 경험의 유무나 재정적 준수 사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고가 입찰자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구매의 의무가 없습니다.

* 진행 방식 *

드림옥션 기간 동안 판매될 모든 꿈이 여기 카탈로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꿈을 입찰하실지 미리 읽어보세요. 현장에서 참여하시는분은 저희 스태프가 진행방식을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낙찰되신 꿈두루마리는 현장에서 드리거나 알려주신 우편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입찰 방법:

1. 이 카탈로그를 통해 경매순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경매사가 각 꿈의 입찰 전, 경매 진행 순서에 따라 꿈 LOT 번호를 공지합니다.
3. 경매 중인 꿈에 입찰을 원하시면 입찰 가격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경매인은 채팅창의 입찰과 현장경매의 입찰을 동시에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4. 낙찰에 성공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양식을 통해 지불방식과 우편 주소를 알려주시면 낙찰되신 꿈두루마리를 전달해드립니다.

Dream Auction

Saturday, June 5th
5-7 pm

venue: Post Territory Ujeongguk 2nd flo terrace (42 Dokmackro20-gil, Mapogu, Seoul)

online participation: us02web.zoom.us/j/89127954320

The Korean tradition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is a practice with rich social and historical layers. In her years exploring this practice, Bongsu Park has collected several dreams which have been written down and shared by participants in workshops and visitors to her exhibitions, including this one. In a culminating event, these dreams will be auctioned off as a way of formalizing an informal practice, and honoring the contributions of dreamers. This event will be playful and casual, offering a fun way to think about the process of transaction in buying and selling dreams. The auction is not a commodification of such a transaction, rather it invites the audience to reflect on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and how it might exist beyond the material realm.

In the event, Byun Hongcheul will lead the proceedings as auctioneer, reading each dream and then guiding participants in the auction process. Each dream will be transcribed on a custom scroll made by the artist, and it will be delivered to the highest bidder at the end of the event. Bidding will take place live online and for a limited number of in-person guests.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be donated to charity. No prior experience with auctions or financial qualifications are necessary to join this event, and event attendees are not required to purchase something.

* how will it work *

This catalog includes all of the dreams that will be sold during the Dream Auction. You are welcome to read it in advance to plan which dreams you can bid on. When you successfully bid on a dream, we will send a link to provide payment and mailing address information for delivering the dream scroll.

How to bid online:

1. Use the Auction Catalog to follow the order of dreams up for bidding.
2. The auctioneer will announce the dream LOT number before each bidding session.
3. When you want to bid on a dream, comment in the chat with the price you want to bid. The auctioneer will monitor the chat and keep track of bids.
4. If you win the bidding, will send you a link to a Google form in order to proceed with payment and delivery of your dream.

DREAM AUCTION



DREAM #210522DGU_001

새하얀 타일로 가득찬 욕실이였다.
욕조 하나가 벽에 붙은채 놓여있고 그 위로는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창 하나가 있었다.
하얀 타일들 만큼이나 매서운 추위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욕조 안에 서 있었다.
창가에는 죽어가는 노란 새 한마리가 있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멎어가는 새였다.
나는 조심스레 내 체온으로 새의 몸을 녹이고
심장을 눌러대며 새를 살리려고 했다.
새 심장이 다시 뛰다 새는 황금색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알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아기 새들이 알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따뜻한 충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2nd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1

부활
resurrection

황금 알
gold egg

충만함
fullness

It was a bathroom full of white tiles.
A bathtub is placed against the wall, and above it is
a small window through which sunlight came in.
A cold as bitter as white tiles filled the bathroom.
I was standing naked in the bathtub.
There was a dying yellow bird by the window.
It was a bird whose heart could not stand the cold and stopped.
I carefully thaw the bird with my body temperature
I tried to save the bird by pressing his heart.
The bird's heart started beating again, and the bird began to lay golden eggs.
And soon the eggs began to crack, and little baby birds began to emerge from the eggs.
I began to feel a warm feeling of fullness.

이 꿈은 2021년 5월 22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2nd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5DGU_002

독길을 걷고 있었다.

길 양 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어린아이, 밤이었다.

밤 하늘에는 궁중에 커다란 성이 떠 있었고

에메랄드 빛깔의 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았다.

나는 길을 걸으며 그 성을 계속 올려다 봤다.

별도 달도 없는 어둠 속에 뜬 그 성은

루비로 지어진 듯 붉고 빛나고 단단해 보였다.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풀 냄새가 진하게 났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5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2

천공의 성
castle in the sky

에메랄드 폭포
emerald falls

풀 냄새
smell of grass

I was walking along the causeway.

There was a river running on both sides of the road.

I was a child, night.

In the night sky, there was a large castle floating in the palace.

Emerald-colored water was flowing. It was like a waterfall pouring down to the ground.

I kept looking up at the castle as I walked down the street.

The castle that appeared in the darkness without a star or moon

It looked red, shiny, and hard, as if it were built of ruby.

I felt an indescribable beauty.

There was a strong smell of grass.

이 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5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6DGU_001

해질녘이었다.

이제 막 해가 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겨우 해의 잔머리만 보이는 정도의 시간이었다. 하늘은 얇은 붉은 선과 그 위를 덮는 푸른 어둠이 차 있었고 내가 있었던 하얗고 곡선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건축물 모서리에는 작은 초가 담긴 유리병이 걸려있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유리병 속 초가 켜졌고 나는 물 속에 있었다. 아마도 작은 야외 수영장인것 같다. 물은 굉장히 따뜻하고 수심은 얕다. 키가 작은 내가 서도 허벅지 중간 정도 밖에 안될 만큼 얕고 따뜻한 수영장이다. 해가 저서 그런지 물에 비치는 하늘은 어둡다. 물도 어둡다. 수영장 가장자리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한 손에 다들 칵테일을 들고 있다. 누구는 와인을 들고 있다. 다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서로 무엇이 그리도 재밌는지 대화를 나눈다.

나는 물 속에 있다. 물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내 주변을 둘러 싸고 앉아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 몸이 담겨 있는 물 만큼이나 마음도 따뜻해진다. 물 속으로 잠수를 하니 몇몇의 다리와 발이 보인다.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난 모든이들 앞에서 한껏 재롱(수영)을 떨었다. 한 마리의 인어처럼 따뜻한 물 속에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BMG으로 수영하고 수영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6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3

따뜻한 물
warm water

수영
swimming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조우
encounters with loved one

It was sunset.

The sun hadn't just started to set, it was about the time when only the small hairs of the sun could still be seen. The sky was filled with a thin red line and blue darkness over it, and at the corner of the white, curved building I was in was a glass bottle with a small candle. It started getting dark, and the candle in the glass bottle was lit and I was in the water.

Maybe it's a small outdoor swimming pool. The water is very warm and the water is shallow. It is a shallow and warm swimming pool that is only about mid-thigh even if I am short. Because the sun has set, the sky reflected in the water is dark. The water is also dark. People are sitting on the edge of the pool. Everyone is holding a cocktail in one hand. Someone is holding wine. Everyone has a smile on their face. We talk to each other about what makes it so much fun.

I am in the water. The water is warm and the wind is cool. Seeing the people I love sitting around me warms my heart as much as the water in my body. When diving into the water, several legs and feet are visible. As if I had made a big decision, I trembled in front of everyone. Like a mermaid, I swam and swam in warm water with the sound of laughter and conversations with the BMG.

이 꿈은 2021년 5월 26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6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3DGU_001

코끼리와 공룡의 중간 즈음의 괴생명체가 서울 경복궁, 광화쪽에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
친구 Y와 H와 함께 어디론가 도망가고있었고 이내 뿔뿔이 흩어졌다.
나홀로 시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탈출하고 어떤 향교, 상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또다른 친구 J를 만나, 사람들과 산속을 뚫 물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워터파크 슬라이딩처럼 생겼다. 그곳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탈출했다.
그 튜브앞에는 J가, 뒤에는 내가 탑승했다. 앞선 팀이 무섭다고 포기해버려서 우리가 먼저 탈수 있게 되었다.
탈출한 곳에 Y와 H가 있었다.

2021. 1.15 꿈 일기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4

탈출
escape

생존
survival
조우
encounter

A monster between an elephant and a dinosaur appeared in Gyeongbokgung, Gwanghwa, Seoul.
Many people died, were injured, and there was a riot.
Friends Y and H were running away somewhere, and then they dispersed.
I took a city bus by myself, and the bus driver used his wits to escape the crisis and arrived at a certain school or shopping mall.
There, I met another friend, J, and went through the mountains with people to find a place where we could escape through the waterway.
It looks like a water park slide. There we escaped with a rubber boat.
J was in front of the tube, and I was in the back. The previous team gave up because they were afraid, so we were able to ride first. Y and H were there which was where they had escaped to.

2021. 1.15 Dream Diary

이 꿈은 2021년 5월 23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탈출
escape

생존
survival
절
temple

DREAM #210523DGU_003

전쟁이 났다. 산 중턱에 있는 피난처에 피난민들이 주차해놓은 차로 가득했고
적군이 산 아래에서부터 몰려오는 중이었다.
대통령과 군대와 피난민들이 그 산에 다 모여 있었는데 적군이 오니까 모두 당황했다.
아군이 앞에서 막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차된 차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대형 차만 터졌다.
알고 보니 우리 군대가 터뜨린 것이었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누군가가 군용 트럭 한 대를 몰고 왔다.
어서 타라며 나를 부르길래 올라타서 피난처 반대쪽 길로 빠져나갔다.
이동 중에 운전자가 화물차를 새로 사서 바꿔 탔다.
탑승자는 둘 뿐인데 왜 그렇게 큰 차를 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가다가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높고 좁은 절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래를 보니 바다 한가운데였다. 무서웠다.
곧 넓은 공터가 나왔는데 거기에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나와 대화했다.
목적지가 절이라고 했다. 구름으로 둘러싸인 크고 화려한 절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였다.
잠시 기다리니 큰 새가 날아와서 우리 앞에 앉았다.
화물차도 절에 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었다.
절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갔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War broke out. The shelter on the hillside was full of cars parked by refugees. Enemy forces were coming from the bottom of the mountain. The president, military, and refugees were all gathered on the mountain, but when the enemy arrived, they were all shocked. Parked cars suddenly started to explode while our allies were blocking in front. Only a large car that could fit a lot of people exploded. Turns out it was our army. I felt betrayed. Then someone drove a military truck. He called me to get on, so I got on and went out on the other side of the shelter. On the way, the driver bought a new truck and rode it. There were only two occupants, and I couldn't figure out why they bought such a big car. On the way, I passed a high and narrow cliff that only one car could pass through. Looking down, it was in the middle of the sea. It was scary. Soon a large vacant lot appeared, where the driver stopped the car and talked with me. The destination was said to be a temple. A large and splendid temple surrounded by clouds loomed in the distance. After waiting for a while, a big bird flew in and sat in front of us. A truck was also the only way to go to the temple. I woke up with hope that I could go to the temple.

이 꿈은 2021년 5월 23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3DGU_002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화목했다.

예전에 시켰다가 남은 피자를 먹으려는데 4조각이 남아있었다.

치즈 피자 두조각, 베이컨 피자 한조각, 또 다른 어떤 피자 한조각.

우리는 피자를 잘라 동물 얼굴 만들기를 하기로 했다.

다들 곰 얼굴 모양으로 피자를 잘랐는데

접시에 담으려고 옮기자 곰 주둥이 부분 치즈가 늘어나서

늑대 얼굴 모양 파지로 변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은 서로 웃었다.

한조각은 봉황 두마리가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다.

형이 지하실에 가서 먹자고 했고,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의 TV에서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 광고를 하고 있었고,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다"라고 말했고,

피자와 곁들여 먹을 배추전과 김치가 TV앞에 놓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웃으며 피자를 나누어 먹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6

화목한 가족
harmonious family

공유
sharing

웃음
laughter

Our family was poor but harmonious.

I was going to eat leftover pizza, but there were 4 pieces left.

Two slices of cheese pizza, one slice of bacon pizza, and one slice of some other kind.

We decided to cut the pizza and make animal faces.

Everyone cut the pizza in the shape of a bear's face.

When I moved it to a plate, the cheese in the bear snout part stretched out.

It turned into a shaped like a wolf's face.

Seeing this, our family laughed at each other.

One piece looked like two phoenixes wrapped around it.

My brother asked me to go to the basement to eat, and we went to the basement talking loudly.

The TV in the basement was playing advertisements before the movie started, and there were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Someone said, "This is a very old movie",

Cabbage jeon and kimchi to go with the pizza were placed in front of the TV.

Our family laughed and shared pizza.

이 꿈은 2021년 5월 23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3rd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9DGW_KHI

집에서 누워있는데 점점 몸이 공중에 뜨기 시작했다.

몸은 점점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높이 높이 올라갔다. 우리 동네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동양을 보고 전 지구를 본 다음에 우주로 나갔다. 우주로 나간 후에는 더욱 빨리 속도를 냈다. 너무 멀리 가는 거 같아서 다시 돌아오자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반대로 돌아와서 다시 방으로 왔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7

자각몽
lucid dreaming

유체투사
astral projection

우주
space

I was lying at home, and my body started to float in the air. My body gradually climbed upward and continued to rise higher and higher. After seeing our town, our country, the East, and the whole earth, I went out into space. After going out into space, I accelerated even faster. It seemed like I was going too far, so I thought I'd come back. Then my body came back to the room.

이 꿈은 2021년 5월 29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 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9DGW_SY1

길을 걷고 있다. 나의 발걸음은 조금씩 가벼워져 어느새 땅위로 솟아오를 정도인 듯 하다. 나는 가볍게 땅을 디디며 하늘로 박차오른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있는 느낌이다. 우주에 가본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영화 속 우주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나도 중력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한번 발을 차올때마다 나는 하늘위에서 점핑하고 있다. 발 아래로 아파트 옥상들이 보인다. 가볍게 옥상 난간을 디더 다시 점프해 이번에는 누군가의 차 위로... 다시 점프... 나는 하늘을 마구 휘젓고 다니며 세상 구경을 한다. 우리동네는 참 바쁘구나... 나는 또 하늘로 올라간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08

자각몽
lucid dreaming

하늘
sky

무중력 비행
zero gravity flying

Walking down the road. My footsteps are getting lighter and lighter, and I seem to be about to rise above the ground. I lightly tap the ground and sprint into the sky. It's like being in a weightless universe. I've never been to space, but maybe this is what it feels like? Like the people moving in the spaceship in a movie, I am moving regardless of gravity. With every kick, I am jumping in the sky. You can see the rooftops of the apartments below your feet. I lightly step on the roof railing and jump again, this time over someone's car... Jump again... I wander the sky and see the world. Our neighborhood is so busy... I ascend to the sky again.

이 꿈은 2021년 5월 29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9DGW_JH1

학원에서 자습을 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책상에 엎드렸더니 곧 잠이 들었다. 그러곤 꿈을 꾸었는데, 신기하게도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내가 보였다. 당시 난 재수생이었는데, 꿈 속에서 자고 있는 나는 고등학교 때 입던 체육복 상의를 입고 엎드려 있었다. 그냥 그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데, 엎드린 내 어깨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파란 베이스의 깃털에 빨간, 노란, 초록색이 보이는 정말 예쁜 새였는데, 마치 요즘 UHD 티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썩하고 선명한 색이어서 아직도 그 장면이 잊히질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그 새가 멍하게 보고 있던 나한테 날아와 내 어깨를 딱 치고 멀리 날아갔다. 그러곤 잠이 깼다. 새가 빠르게 치고 갔던 그 느낌이 깨고 나서도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10년도 더 지난 꿈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9

화려한 새
radiant birds

접촉
touch

느낌
feeling

During self-study at the academy, I suddenly felt sleepy and fell asleep on my desk. Then I had a dream, and strangely, I saw myself lying on my desk and sleeping. At the time, I was a continuing education student, and sleeping in my dream, I was lying face down in the gym uniform I wore in high school. I was just staring blankly, and a bird flew over my shoulder. It was a really pretty bird with red, yellow, and green colors on its blue-based feathers, but it's a very vivid and vibrant color just like in an HD TV commercial these days, so I still can't forget that scene. Then, suddenly, the bird flew to me and slapped me on the shoulder and flew away. Then I woke up. The feeling of a bird beating quickly did not go away for a while after waking up. It was a dream 10 years ago, but I still remember it vividly.

이 꿈은 2021년 5월 29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 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9DGW_EKI

커다란 고궁 입구가 보인다.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 구석구석 보아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개나리가 풍성하게 만개한 가장 끝 궁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내 그곳이 불길에 휩싸인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안쪽 마루에 화려한 장신구와 한복을 걸친 왕비같은 사람이 미소를 띠며 차분히 앉아있다. 개나리와 불, 왕비, 고궁이 함께 보이지만 아무것도 불에 탄 흔적은 없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10

고궁
palace

불
fire

왕비
queen

I see the large entrance to the palace. I steadily go inside. Everywhere I look, no one is there. As I go deeper, the last palace, where forsythia is in full bloom, appears, and soon the place is engulfed in flames. Upon closer inspection, on the inner floor, a queen-like person wearing colorful ornaments and hanbok is sitting calmly with a smile. I can see the forsythia, fire, queen, and palace all together, but there is no sign of anything burned.

이 꿈은 2021년 5월 29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210529DGU_002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막 비스무리한 공간에서 표류하다가,
문득 정신을 집중하여 몽골식 전통 가옥과 같은 캐노피로 된 공간을 창조해냈다.
그 공간 안에는 말하자면 '꿈 자판기' 같은 것이 있어서,
꿈의 압축본이 Thumbnail처럼 재생되는 캡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뒤엎힌 회로에 넣으면
그 꿈의 차원의 문이 열려 그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었다.
(언제든 마음대로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꾸는 꿈을 알고, 어느 순간 그것을 주체적으로 통제하여,
기어코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생산하여 캡슐에 담아내기까지 하게 되었다.

At First for a while, I roamed timelessly in unintelligible weird space. At some moment, however, with an accidental focus of mind, I could 'create' a canopy-like space on the dessert-like space, which looked similar to Mongolian traditional house. That space was actually a dream-factory/dream vending machine, a 'capsule' in which contained playing images like youtube thumbnails that briefly introduced certain dreams. So when I picked up any dream capsule and put it into a code, another dimension was opened and absorbed me, from which I could get out of any time I wanted to. At some point, I realized that I was conscient of what I dreamt, and eventually at some point I was the one that holds the steer of dreams, and even 'produced' what I would dream.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Bongsu Park's project *Dream Auction*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11

자각몽
lucid dreaming

꿈 자판기
dream vending machine

꿈 생성과 통제
producing and controlling dreams

At first for a while, I roamed timelessly in unintelligible weird space. At some moment, however, with an accidental focus of mind, I could 'create' a canopy-like space on the dessert-like space, which looked similar to Mongolian traditional house. That space was actually a dream-factory/dream vending machine, a 'capsule' in which contained playing images like youtube thumbnails that briefly introduced certain dreams. So when I picked up any dream capsule and put it into a code, another dimension was opened and absorbed me, from which I could get out of any time I wanted to. At some point, I realized that I was conscient of what I dreamt, and eventually at some point I was the one that holds the steer of dreams, and even 'produced' what I would dream.

이 꿈은 2021년 5월 29일 서울시 탈영역우정국에서의 <몽상가들의모임>전시중에 기부되었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during the Dreamers' Gathering exhibition at Post Territory Ujeongguk in Seoul, South Korea on 29th May 2021.

DREAM AUCTION



DREAM #180925DAW_GMI

I dreamed of hovering 2 metres above the ground and then shooting up and down and forwards and backwards by my own will. I just had to think it and then my body did it. I had a lovely free feeling. I was totally in control. I could move in any way I liked, but I kept coming back to the hovering position again and again. My arms were just hanging normally by my sides.

The place where this was happening was incredibly beautiful and sparkling with crystal light. There were magnificent fields of rich green and trees and birds and animals which all seemed happy. I was in a state of rapture.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Gary Manton on 25th September 2018 as part of DREAM AUCTION, a project by Bongsu Park. This project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12

자각몽
lucid dreaming

무중력 비행
zero gravity flying

아름다운 경관
beautiful scenery

나는 지상 2m 정도 위를 떠다니며,
내 마음대로 위아래 또 전후좌우로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냥 생각만 하면 내 몸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 자유로운 느낌을 만끽했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며 하늘을 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날아가도,
다시 저절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출발한 그 자리에 떠 있었다.
내 몸에 붙은 양팔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꿈 속의 그 장소를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답고 크리스탈 빛으로 반짝였다.
드넓은 푸른 들판과 나무, 새, 동물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완전한 황홀경 속에 있었다.

이 꿈은 2018년 9월 25일 Gary Manton님으로부터 드림옥션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받았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Gary Manton on 25th September 2018 as part of Dream Auction.

DREAM AUCTION



DREAM #200721DAW_CC1

I'm part of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and we have just solved a case. It's Sunday and we have a day to while away the day in the hotel before we travel by train to our next case at 9pm.

We are in a big room where the team are doing their own thing. I go back to my room to do my final packing. Then I see something suspicious and it's a criminal mastermind. I catch them and find a phone that has a secret channel to another seriously dangerous criminal mastermind and I secretly spy on them through that.

Later on I go with someone else into the lift. We have a problem entering and exiting. Finally, we get out and the sight at the back of the hotel is breathtakingly beautiful,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scribe in words. The light is incredible, reds, mauves, aubergines, and yellows, a combination of the light and the flowers and the foliage and grasses. Suddenly I am looking at the water and as I try to take a photo it is full of dolphins and I cry out to tell everyone. I look again and see these strangely beautiful silvery fish a combination of flying fish and sword fish filling the waves. Next I see penguins swimming through the waves. All too soon it goes dark and I am in awe of what I have just seen.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Charlotte Callaghan on 21st July 2020 as part of DREAM AUCTION, a project by Bongsu Park. This project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13

문제 해결
problem-solving

아름다운 경관
beautiful scenery

경외감
awe

나는 특별 조사단의 일원으로 방금 사건을 하나 해결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녁 9시에 기차를 타고
다음 사건을 위해 이동하기 전 호텔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큰 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나는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고, 그는 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 그 사람의 전화로
또 다른 주요 용의자와 비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밀리에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승강기를 탑승했다.
승강기에 타고 내리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내려가 호텔을 나갔고 그 뒤에서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다.
붉은 빛과 꽃, 단풍과 푸른 들판, 연보라빛, 노란 꽃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이였다.
또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려던 중
돌고래 떼가 가득히 헤엄치는 것을 보고 소리 질러 모두에게 알렸다.
다시 바다를 보니 날치와 아름다운 은빛 창 새치 같은 물고기가
파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파도 속을 헤엄치는 펭귄을 보았다.
곧 어두워 졌고 나는 내가 본 것들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

이 꿈은 2020년 7월 21일 Charlotte Callaghan님으로부터 드림옥션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받았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Charlotte Callaghan on 21st July 2020 as part of Dream Auction.

DREAM AUCTION



DREAM #181005DAW_BH1

I had a dream last week that there was a fox in my bed. She was my friend and meant me no harm. She came to live with me because the woodland was getting too hot. In the morning the fox baked bread made from acorns and dead leaves. It was delicious. I don't know the fox's name, she never told me. Then she vanished. She left behind some tiny, tiny shells.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Bullardhope on 5th October 2018 as part of DREAM AUCTION, a project by Bongsu Park. This project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14

여우
fox

우정
friendship

조개 껍질
shells

지난주에 한 여우가 내 침대에 있는 꿈을 꿴다. 그녀는 나의 친구였고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의도가 없었다. 그녀가 살면 숲속 나라는 너무 뜨거워졌고 그래서 나랑 살러 온 것이었다. 아침이면 그 여우는 도토리나 낙엽으로 빵을 구워주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 여우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기에 이름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는 작은 조개껍질들을 남겨두었다.

이 꿈은 2018년 10월 5일 Bullardhope님으로부터 드림옥션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받았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Charlotte Callaghan on 5th October 2018 as part of Dream Auction.

DREAM AUCTION



DREAM #190403DAW_HL2

I am on holiday. I find some old jewellery which has been discarded in the street. There is a jewellery shop nearby, but they sell, bright modern things and I think they may have thrown out some old stock, which is lying in the sand on the street. I gather it up. It is the sort of costume jewellery I sold on my stall. I get a few things including a Nefertiti brooch, which is silver/tin and a good one. Perhaps I am in Egypt which has this mix of city and desert/sand/unpaved or dirty streets, because I remind myself to look carefully at the buildings around, as I am in Egypt, and know this is precious time.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Hazel Riley on 3rd April 2019 as part of DREAM AUCTION, a project by Bongsu Park. This project facilitates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reflecting on the intimate exchanges embedded in traditions and interpersonal networks. Please accept this dream with care.

LOT 015

오래된 보석
old jewelry

발견
discovery

깨달음
enlightenment

나는 여행중이다. 거리에 버려진 오래된 보석들을 발견한다. 근처에 보석 가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밝고 현대식 보석을 파는 가게이다. 나는 그들이 어쩔 오래된 재고품들을 버렸던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오래된 보석은 거리의 모래밭에 놓여져 있다. 보석을 모았다. 내가 노점에서 팔았던 종류의 의상보석이다. 네페르티티 브로치, 은/주석 등의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다. 아마도 나는 도시와 사막/모래/포장되지 않은 더러운 거리의 이집트에 있는거 같다. 왜냐면 나는 주변 건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집트에 있다는것과 지금이 소중한 시간이라는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꿈은 2019년 4월 3일 Hazel Riley님으로부터 드림옥션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받았습니다.

This dream was contributed online by Hazel Riley on 3rd April 2019 as part of Dream Auction.

[자주하는 질문]

꿈을 구매하면 어떤 유형의 구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드림 옥션은 기여된 꿈을 두루마리 형식에 인쇄가 되며 낙찰자는 드림 옥션이 인증한 이 꿈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각 두루마리는 에디션이 하나만 있는 오리지널이며 박봉수 작가가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체 수익은 꿈을 기부한 사람이 받습니까? 드림 옥션은 문화적인 관행을 상품화하는 것 아닙니까?

드림 옥션은 꿈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선의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입니다. 드림 옥션의 수익금은 소보사 - 소리를 보는 사람들 비영리 단체에 기부됩니다. (Instagram: @sobosa2006). 드림옥션은 가까운 주변인들과 꿈을 사고파는 일상적인 관습을 경매라는 체계화된 형식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꿈의 거래 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꿈 경매로 책정되는 가격이 아닌, 관객들로 하여금 꿈의 가치 구조와 교환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는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굳이 제 꿈을 팔아야 할까요? 꿈처럼 무형의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행운이나 재운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꿈을 사고파는 한국의 관행은 보통 친구나 가족 간에 일상적인 대화 속의 거래에서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주인에게 그 꿈을 팔도록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돈으로 지불하거나, 아니면 귀중한 물건을 주거나 맛있는 식사로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만족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어떤 종류의 꿈이 다른 꿈보다 더 가치가 있나요?

어떤 꿈은 한국 문화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와 관련된 것은 전통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암시합니다. 풍성한 과일과 관련된 꿈은 출산에 관한 의미를 가집니다. 긍정적인 해몽을 가진 꿈은 좋은 가치를 가진 꿈이라 여겨집니다. 꿈의 해석은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누군가의 혼란스러운 꿈이나 악몽이 다른 사람에겐 좋은 의미의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꿈을 구매하세요.

경매에 참가한 적이 없고 꿈을 산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경매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드림 옥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재정적인 요구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드림 옥션 팀은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매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입찰자는 어떻게 꿈이 단지 발명된 이야기가 아닌 진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꿈을 거래하는 일은 신용, 믿음, 그리고 선의를 기반합니다. 드림 옥션 측은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최선의 의도로 정성껏 개인적으로 꾸었던 꿈을 기부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암묵적 원칙을 기반으로 몽상가들의 꿈의 기부의 의도를 신뢰합니다.

꿈을 사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나요?

되파는 꿈은 효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재판매는 매우 이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매자가 꿈을 구매하면, 그 꿈은 구매자의 개인 소장물입니다. 소장된 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구매하신 꿈을 다루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bongsupark@icloud.com

[FAQ]

Do I get any kind of tangible object or proof of purchase if I buy someone's dream?

DREAM AUCTION will print the dream text on a scroll, and the successful bidder will receive this dream scroll, authenticated by DREAM AUCTION. Each scroll is a unique edition of one and is handmade by artist Bongsu Park.

Does the dream contributor receive the sale value? Is DREAM AUCTION capitalizing on a cultural practice?

DREAM AUCTION is a not-for-profit artistic venture which honors the contributions of dreamers. The profits from the auction will be donated to Sobosa, a non-profit organization creati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agram: @sobosa2006). The auction is part of the artist's project and overall artistic practice. This event offers a way to formalize an informal practice while honoring the contributions of dreamers. The auction is not a commodification of such a transaction, rather it invites the audience to reflect on the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and how it might exist beyond the material realm.

What is the point of owning someone else's dream? How can something as intangible as a dream ever be owned?

Many people believe dreams can have a positive meaning, or can contain an omen that may bring them luck or good fortune. In the Korean practice of buying and selling dreams, the exchange is based on mutual trust and belief which would normally happen between friends or family in casual conversation. If one person thinks a dream has a beneficial meaning they might ask the dream owner to sell them the dream. The buyer would pay with money, or perhaps offer a valuable object or service in exchange, or even provide a nice meal. But both sides should agree and be happy about what they are exchanging.

Are certain types of dreams more valuable than others?

Certain dreams are indicators of positive meaning in Korean culture. For example, one involving a pig would traditionally allude to the arrival of wealth. One involving ripening fruit may indicate a message about fertility and childbirth. Any dream which has a positive interpretation has a subjective value that makes it desirable. At the same time, dream interpretation varies between cultures and individuals. Also, someone's nightmare may indicate something more positive to someone else. We encourage you to trust your feelings and instincts, and to buy the dream that feels good for you, whether or not the meaning is overtly clear.

I've never attended an auction before. Can I still participate?

Everyone is welcome to join the DREAM AUCTION. No prior experience or knowledge of auctions, or buying and dreams, is necessary. Also, no financial requir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be a part of the auction. Our kind and patient team who will make sure that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e auction is comfortable and treated with care and respect.

How does someone bidding for a dream know it's a real dream and not just an invented story?

Selling and buying dreams is based on trust, belief and goodwill. We ask everyone that contributes their dream to do so with care and to submit a dream that they personally have dreamt - so we in turn place this same implicit principle of trust into every dreamer who makes a contribution.

If I buy a dream, can I re-sell it to someone else?

Re-selling would be highly unusual and one suspects that the dream's potency would somehow be diminished. However, once the buyer has purchased a dream, the dream belongs to them. It becomes their dream and theirs alone. It is up to the buyer to decide what to do with it. In keeping with the trust that we ask of everyone who participates, we recommend that you treat the dream you buy with care.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please email: anna.harsanyi93@gmail.com